

10/29/17

설교 제목: 칭의를 얻는 방법: 이신득의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3:19-31

-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절관주** 고전 1:29, 엡 2:9, 롬 9:30
- (롬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 (롬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 (롬 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복음의 필요성을 1:18 에서부터 3 장 18 절까지에 걸쳐 설명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며 그런 연유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9 절과 20 절에서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못을 박습니다.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양심의 법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주어졌으니 말할 것도 없이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율법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뻔히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아 자신이 죄인됨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뭐하라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은 영어 성경에는 But now 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져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각자의 운명 앞에서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도 다 밝혔던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억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증거되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본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제사들, 유월절 어린 양, 성막 제도 등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암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통해 의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에서 자유로와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근심과 소원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신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 우리에게 거저 준 길입니다.

이렇게 받게 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율법을 범하므로 죄인이 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행위로 얻는 의와 대조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의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의입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본 절을 앞의 24 절 말씀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유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보혈 공로로 씻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조건 의롭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의롭지 않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판단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하자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칭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의의 정당함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가받은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정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성도들이 받은 이 칭의는 성도가 갑자기 본성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도의 의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롬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롬 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분 뿐인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진리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동일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어제든 오늘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해서 이제 율법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롬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도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칭의를 입는 방법 뿐입니다.

'이신득의' 믿어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신득의'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 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면 이 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고 자식의 출세를 보는 것보다 더, 아니 훨씬 더 중요하고 급박한 일은 이신득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 사실을 널리 전하기 바랍니다.